

광주매일 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650-2010

[지방자치 이슈&인물] 황현택 광주시의원

인터뷰/토크, 뉴스, 문화산책, 기획 등 다양한 콘텐츠 소개

“악당이지만 연민이 느껴지는 캐릭터 표현”

누아르 영화로 돌아온 장혁 “빌런 역할 해보고 싶었다”

액션·누아르 장르에 일가견 있는 두 배우 장혁과 유오성이 다음 달 17일 개봉하는 영화 '강릉'에서 호흡을 맞췄다. 장혁은 최대 규모의 리조트 건설을 놓고 대척점에 선 민석, 길석 역을 각각 맡았다. 장혁은 지난 15일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빌런(악당)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고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가 연기한 민석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인물이다. 길석이 서열 2위로 있는 조직폭력배로부터 리조트 사업권을 빼앗으려 하면서 둘 간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나 장혁은 민석이 보통의 악당들처럼 직선적인 캐릭터는 아니라며 “악당이지만 연민이 느껴지는 캐릭터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성 형님과 스크린에서 연기한다는 벽감이 있었다”고 드라마 '장사

의 신 - 객주 2015' 이후 6년 만에 유오성과 재회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유오성은 “운 좋게 ‘비트’, ‘친구’를 찍었다. ‘강릉’은 개인적으로 누아르 3부작을 완성하는 작품”이라며 “대사가 낭만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영화 장르가 로맨틱 누아르처럼 다가왔다”고 했다. 연출을 맡은 윤영민 감독은 두 배우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첫째도 둘째도 ‘연기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감독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데 여러 요소가 있지만, 스타성이나 이미지는 연기력이 뒷받침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며 “다행히 모든 배우들이 캐스팅 제안에 응해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연 배우들도 장혁과 유오성의 연기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길석의 오른팔 형근 역의 오대환은 “유오성 형님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 굉장한 떨림”면서도 “촬영 현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배역에 편하게 적응했다”고



영화 '강릉' 포스터 <아선디오 제공>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여성인 오선 역을 연기한 이재영은 “선배님들이 호흡을 너무 잘 받아줘서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질문도 많이 하고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덕분에 1천배 이익”

김승수 의원 국감서 주장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덕분에 투자액 대비 1천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감조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 출시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원(지난 5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천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 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만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지재권을 모두 확보하는 넷플릭스 계약 방식을 거론하며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사 간 지재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계약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 업계가 지재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CTV 광주방송 프로그램 안내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의 주요뉴스와 동네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광주시 코로나19 브리핑을 녹화중계로 제공한다.
우리가 간다 (12:00~12:50, 20:00~20:50)
지역일차 탐방 프로젝트, 광주의 장소, 광주의 인물, 광주의 현장을 찾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본격 홍보의 장.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들을 만나본다.

TBN 광주교통방송 프로그램 안내
TBN 광주매거진 (17:00~17:52)
진행자: 박대우 | 프로듀서: 김현정 | 작가: 이희경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교통 현안을 집중 조망해보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
달리는 라디오 (18:05~19:52)
진행자: 장원나·김재석 | 프로듀서: 양종일 | 작가: 박지영
퇴근길!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드립니다.
더불어 세상사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퇴근길을 편안하게 길라잡이 해드립니다.

TV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EBS1 등 방송사별 프로그램 시간표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9월 13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고성 끝어 좋은 기회가 찾아올 운이다.
말띠: 너무 여러가지 따지고 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호랑이띠: 또 다른 상황을 잘 예측할 것.
토끼띠: 가까운 곳에서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
용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한가롭게 보낼 듯.
돼지띠: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아파할 수 있다.